

정치를 바꿔 우리 삶도 바꾸자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2020_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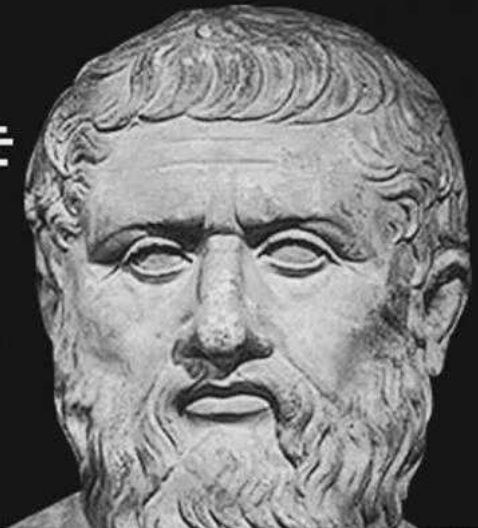
2020.3.23(월)

☎ 02-497-7888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www.kptu.net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실에서는 노조 정치위원회와 함께 현장조합원 정치의식 제고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정치를 바꿔 우리 삶도 바꾸자>란 주제를 이번 달부터 기획연재 합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며 이번 3월호는 전체 '정치'를 주제로 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과 함께 연재할 계획입니다. 산하조직에서는 현장교육에 적극 활용바랍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BC428-348)



‘정치’란 주제는 가족 간에도 꺼내기 쉽지 않은 대화주제다. 노동조합에선 더욱 그렇다. 웬만한 구력과 정치적 신념을 가진 간부가 아니면 조합원들 앞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긴 어려워 피하고 외면하기 일쑤다. 그러나 정치가 피하고 외면한다고 될 일인가? 텔레비전과 신문지면은 온통 정치 얘기뿐이다. 왜 일까?

오늘 날 사회는 그 ‘정치’가 만든 법과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내 삶도 우리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착취가 없는 평등세상을 위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외치고 투쟁해 왔다.

“코로나19” 전 지구적 재난상황, 4·15총선은 예정대로 진행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온 나라가 마스크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긴밀한 유대는 “거리두기”로 바뀌고 있다. 언제까지일지 기약도 없다.

프로스포츠, 학교 등 모든 일정이 연기되고 있지만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치가 뭐 길래?

일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정치는 “딴 나라, 그 사람들의 얘기”다. 국회는 다른 계층, 계급이 지배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38억 4,866만원이었다. 그들보고 노동자들 편을 들어 달라고?? 그들은 노동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 지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에 그들의 “정치”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정치 (政治)

- (1)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 (2)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늘리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

한마디로 인간사회의 계급, 계층간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셈이다.

그러나 그 “원만한 조정”이라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보는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가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준다.

그럼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떤가? “정치가 밥 먹여주냐”고 묻는 이면에는 그동안의 한국정치가 노동자들에게 밥을 주기는커녕 빼앗아 온 현실이 있다. 정치가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반복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괴물”과 “악마”로 표현하는 막말을 마구 퍼붓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하자. 정치가 밥 먹여 주냐고? 밥 먹여준다. 진짜다. 심지어 그런 제목의 책도 있다. 문제는 정치가 노동자들에게 밥을 먹여 주려면 그 정치가 노동자들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3월 17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11조 7000억 원이 통과됐다. 그 돈이 얼마나 고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을까?

공공운수노조가 연일 기자회견(▶경향신문 3월 18일자)을 통해 밝히고 있는 어린이집 돌봄 보육교사들, 학교의 비정규노동자들, 배달노동자들, 쉽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견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지는 모두 “저들의 손”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틈탄 '보육교사 임금 삭감 꼼수' 고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이뤄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무급휴가 및 연차 사용 강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10일 보육교사 78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한 무급휴가 처리,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삭감하는 '꼼수'가 발생했다고 했다. 강윤중 기자

따라서 그들이 통과시킨 추경 중 노동자를 위한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대상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1000억원”이 고작이다. 117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회적 약자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대응은 정치권력에 맡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심해져가는 전 지구적 오염과 각종 병원균에 대해 대처하는 체계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이 없는 노동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읍소하는 길이 유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집회조차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변종 꿈수 정치 바이러스, 비례용 위장정당 난립

이 와중에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꾼들은 매우 분주하다. 촛불이 원한 세상은 수 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 온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폐의 대마왕은 “정치”다.

2019년 내내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그나마 보수 거대여당과 야당의 나눠먹기 국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은 결국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되었다. 고작 현재 국회의원의 10분의 1인 30명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거의 짝퉁으로 변질되어버렸다. 그러나 지금 정치꾼들은 그 30명조차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난리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롭게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그들은 비례국회의원을 위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었다. 더불어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한마디로 개판, 난장판이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은 그들의 농간에 쓰레기로 변질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 변수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개혁과 세대교체를 부르짖던 정치판에 창궐하는

꿈수 바이러스다. 압권은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의석 도둑질’이라고 비난해온 민주당이 똑같은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 ‘듣보잡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총선은 여야 위성정당이 대결하는 저질 코미디를 연출하게 됐다.

한국일보 이유식 논설위원은 3월 19일자 지면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극복하겠지만 기만과 술수의 정치 바이러스는 ‘진영’을 숙주 삼아 진화를 계속한다. 정의당만 빼고, 주권자가 심판의 몽둥이를 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4월 15일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가 무슨 짓을 하게 될 지는 뻔하다. 저들은 왜 상식도 없이, 자신들이 말해 온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국회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가? 정치권력야말로 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노동조합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왜 하는지, 노동운동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다. 노동운동 역시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건강한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닌가? 물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안전하고, 안락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함 아니던가?

“건강한 사회에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이윤창출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본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하자. 경쟁을 제1의 가치로 하는 사회, 차별의 제도화를 통한 이윤 착취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연대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둔다. 이 가치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대립을 가져온다.

그것은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매번 겪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대립은 단지 사업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길은 노동자가 정치권력을 둘러싼 대립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자본가와 정치꾼들의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직접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꿔 나가고, 결국에는 보다 많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4.15 총선을 저들만의 잔치로 두어선 안 되는 이유다.

촛불항쟁 이후도 배반의 정치, 3류 정치는 여전

사실 노동조합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은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87년 6월 항쟁과 뒤 이은 노동자 대투쟁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항상 저들이 쥐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항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지만 결국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배반의 정치>일 뿐이다. “3류 정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은 반복되고 있다. 정치를 바꿔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노동조합과 정당

노동조합은 나이, 성별, 종교, 이념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조직이다. 반면 정당은 일정한 이념과 정치철학으로 조직된다. 같은 조직이지만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인 반면 정당은 정치결사체의 성격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가입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활동의 목표로 삼는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합원들의 생각을 대변하여 자본과 정부에 대항한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세계 1차 대전을 반대하며 봉기를 조직하다 군인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유명한 독일의 여성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말한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자본주의적 착취가 특정시기에 용인되는 한계점을 넘지 못한다.”

즉, 노동조합이란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투쟁에 머무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호황일 때 노동조합의 투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이유다. 경제가 침체되면 노동조합도 위축되고 방어적이 된다. IMF 때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정치 활동을 위한 무기, 즉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있다. 1차 대전 이후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유럽노동운동의 비극]이라는 책을 쓴 A.스터르담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운동은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정치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 노동 대중 다수가 근본적 개혁이 바로 자신의 직접적 이익이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깨닫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은 본래 의미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에 [정치위원회]가 상설조직으로 존재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4월 15일을 준비하자

이번 4.15 총선에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정당 후보는 총 103명이다.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 후보는 60여명이었다. 대폭 늘어난 셈이다. 공공운수노조에도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정의당 비례후보로 3명, 지역후보로 3명이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정당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4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국회에 후보를 출마시키진 않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에 출마하는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동조합, 정치가 반(半)이다.” 작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노조 정치신문의 이름이다. 노동자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정치 역시 노동자에 삶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집중하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구체적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4.15 총선방침 등은 다음호에 연재한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4·15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안내

 강은미 광주전남지부 정당당 비례 3 정당당 비례 • 로케트진기 해고자 복지투쟁위원장 • 광주 서구의회-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 정당당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 • 정당당 부대표	 이은주 서울교통공사노조 정당당 비례 5 • 1993년 서울지하철공사 입사 • 서울지하철노조 역무4팀 지회장 • 서울지하철노조 여성부장, 정책실장 • 현)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	 양경규 서울지역본부 정당당 비례 8 •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치위원장, 교육위원장 • 민주노동당 부대표 • 현)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겸 교육센터장	 염경석 국민건강보험노조 정당당 전주 갑 • 민주노총 전북본부 초대~4대 위원장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초대~2대 위원장 • 진보정당 후보로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후보 • 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치위원장	 이의응 부산지하철노조 정당당 부산북구 강서구을 • 2005년 7월 부산교통공사 입사 •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2013~2017) • 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	 오형수 국민건강보험노조 정당당 전주 을 • 제18대 지방선거 정당당 전주시장 출마 •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분부장 • 정당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 • 현) 국민건강보험노조 지도위원
---	---	--	---	--	---

이렇게 합시다!

1. 지역과 비례후보로 출마하는 공공운수노조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 각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3. 정당투표는 꼭 진보정당을 찍어 국회를 바꿉시다.
4.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는 반드시 떨어뜨려 정치를 바꿉시다.



4·15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

3. 26(목)~3. 27(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4. 1(수)~ 4. 6(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4. 2(목)	선거기간개시일
4. 7(화)~4. 10(금)	선상투표
4. 10(금)~4. 11(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4. 15(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참고 영상

<https://youtu.be/12C7tErjFxA>
 준연동형비례대표제 5분 정리(A/S)/씨리얼 /2020.2.4./05:34

https://youtu.be/_Z13QZh2cw
 마우스랜드(Mouseland)/2014.9.29./07:33

<https://youtu.be/W5NcdUaiahg>
 [총선뽀개기]21대 총선의 모든 것! 핵심요약 완전정복/민주노총/2020.3.11./06:59

<https://youtu.be/Yyvp6LW6-g>
 [총선뽀개기]21대 총선의 모든 것! 핵심요약 완전정복 두 번째/민주노총 /2020.3.13/08:25